

# KREI리포터 경기지회 간담회 결과

경기지역 리포터

기록자: 임 광 혁

<b>일 시</b>	2017년 3월 22일 수요일	<b>장 소</b>	동구박(경기 용인시)
<b>참 석 자</b>	김경태, 연구석, 이길숙, 이윤현, 정병덕, 임충빈, 임광혁(총 7명)		

## 1. 주요 일정

시 간	일 정	비 고
11:40~13:00	집결 및 점심식사	동구박
13:00~14:30	경기지회간담회	카페모안
14:50~15:30	청암농원 견학	김경태 화훼농가 방문
15:30~	해산	

## 2. 회의내용

1) 3월 현장의 소리: 『최근 AI와 구제역등 가축 질병이 국민의 농업농촌에 대한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고, 그러한 영향에 대한 대응방안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 정병덕: 항상 AI가 발생하면 산업쪽 특히 요식업에만 정책이 치우치는것같다. 농축산을 하는데 영세하여 너무 밀식생육으로 하게 되는 현실이 안타깝다. 이제는 매년 발생하는것같아 근본적으로 밀식으로 키우는 방식을 지양해야 하나 개선하려면 경제적부담이 너무 크니 정책적인 방향이 필요할 것 같다.

■ 김경태: 사후처방에 대한 반복적인 처리방식이 해결방안이 될지 의문스럽습니다. 발생농가에서는 낫 놓고 당하는 문제를 언제까지 불안해 하는 것을 감수해야 할지 걱정입니다. 철저한 예방방안을 모든 농가에 적용될수 있도록 관련기관이 더욱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이번 AI와 관련해서 상승된 계란값 및 생닭값이 AI발생이전으로 정상화 되도록 해야 합니다.

■ 연구석: AI진흥지역 안에 축산도 농업이라는 논리하에 축산을 허락한후 2017년 AI확산 상태에 있다. 도양오염 및 주위농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주민이동 통제 소독으로 인해 차량을 매일 세차해야 하는 경우가 생겨 매우 불편한게 현실이다. 행정관계 및 축산계에서는 주민과 마찰을 위해 해소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진흥지역에서는 축산을 허가해서는 안될것이라 생각된다.

■ 이길숙: 우선 AI난 구제역이 발생했다는 보도에 믿을수가 없다. 우리 마을은 양계장동네이기 때문에 이번 AI사태를 현장에서 생생하게 경험하게되었다. 병이 걸린 양계장이나 안걸린 양계장이나 무조건 살처분하는건 정부에서 재고 해 볼일 같다. 살처분비용이 닭한마리당 14,000원이라고 들었다.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고비용으로 보상해 농가를 살린다는데 이를 악용하는 농가도 있기에 농업예산집행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할 것 같다.

■ 임광혁: AI로 인한 양계살처분으로 양계생육두수는 급감하게 되었고 이로인하여 계란과 생닭값의 인상으로 가계부담이 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AI나 구제역등이 해마다 발행하는이유가 단지 철새유입으로 인한 바이러스감염으로 원인을 전가하기보다는 근본적인 우리 축산농가의 밀식생육방식에서 오는 저항성약화에서 오는 것은 아닐지 고민해 볼필요가 있다. 국내에서는 동물복지와 관련하여 적정생육두수를 법제화하여야 하여 건강한 축산산업으로 생리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된다. 또한 매년 발생하는 AI 및 구제역 방역과 관련하여 철새도래지의 철저한 상시 방역체계와 취약축산농가를 중심으로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저점중심의 방역시스템을 제도화하는 방역관리가 필요할것으로 생각한다.

## 2) 경기지역 농업이슈 및 현장여론

■ 정병덕: 시흥지역은 지하철패달로 인하여 주위 논들을 너무많이 매립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시당국에서는 관리감독 단속을 철저히 하고 개발업자들은 사업 목적으로만 개발하게 할수 있도록 농지의 경우 처음부터 공사단가를 책정할 때 주위,논밭에 매립을 못하도록 단가를 책정하여 처음부터 매립지를 선정하여 한곳에 매립하게 했으면 그러한 패단을 없앨수 있도록 제도화 했으면 좋겠다.

■ 김경태: 외국인고용과 관련하여 성실근로자는 한 근무지에서 3년+1년10개월을 근무하여 총 4년10개월을 근무한 근로자입니다. 그 만큼 그 근무지에서 필요로하는 필수인력이기에 장기간 고용할수 있도록 개선해야 하는데 현재 외국인 성실근로자의 재고용횟수가 1회입니다. 추가로 고용가능하도록 제도가 변경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 연구석: 평택에서는 평택항에 수입되는 농산물에 대하여 불매운동이 전개될 예정입니다.

■ 이윤현: 배재배를 업으로 하는 농민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과고를 넘어야 할지 막막합니다. 우리나라 과수산업에 대한 해법이 필요성이 절실합니다. 농지토지보상과 관련하여 왜정시대 때 토지보상법이 바뀌어야 한다. 한평당 보상금이 남양터널의 인접의 경우 일만원이 말이 되는가?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농업회사법인, 농업수출영농법인등 농업관련회사에 대하여 각종 보조사업관 관련하여 감사원감사를 실시하여 보조사업의 투명성

을 제고하여야한다.

■ 임충빈: 농업지원, 보조사업의 대부분이 컨설팅을 거쳐야하므로 농촌,농업,농업인에게 혜택은 그 만큼 줄어들고 컨설팅이 수준이 낮고, 지역실정에 맞지않고 또 전국에 똑같은 내용이라 실효성,실용적이지 않다. 컨설팅을 위한 사업이 되고 공무원이 그 사업의 성과에 대해 책임을지지 않으려는 방법이다. 또 가능성 있는 개인, 농가보다는 마을,조합 등에만 혜택, 지원하므로 책임감과 추진의지가 낮아 중도 중단, 상과미흡, 주민간 불화가 된다.

■ 이길숙: 가뭄으로 물(농업용수)이 너무 부족한 실태이다. 아무리 쌀농사가 과잉생산으로 천박받는다고는 하지만 가뭄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 싶다.

■ 임광혁: 광주시 생활학교육협회 발족으로 지역농산물을 소비촉진하는 계기가 될것으로 생각되며 우리 나라도 일본과 같이 국민식생활기본법등을 통하여 지역농산물소비와 건강한 식습관교육으로 안전한 농산물소비촉진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 농촌전통주거마을에 대해서 무분별한 산업단지개발로 농촌주거환경이 황폐해지는 것에 대하여 근본적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 3) 기타 논의

제2기 신임 경기지회장 임충빈회원이 선출되었으며, 총무는 임광혁회원이 선출되었습니다.

## 2. 이모저모



# KREI리porter 경기지회 간담회 개최 공지

로그인 | 사이트맵
KREI 리porter 사랑방

---

연구원 소개

리porter

활동안내

전체메뉴

---

커뮤니티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사진방

리porter 활동사진

농업농촌사진

지역소식

회원상점소개

지역소식

지역회원끼리 소식과 경보를 주고받는 공간입니다.

---

2017년 전반기 경기지회 간담회 개최 안내

지역	경기	작성일자	인원명
작성일	2017-03-08	조희수	11
첨부파일	<a href="#">(안내문) 경기지회_간담회_개최_20170307.hwp</a>		

경기지회 회원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세월이 유수월 없이 흘러갑니다. 이번 전반기 모임을 남양주 감동역 회원들의 농장에서 개최하고 벌써 신년 전반기 모임을 준비하니 정말 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이번 전반기 모임을 준비하는 동안 지역의 경쟁력 향상과 농촌경제에서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번 모임을 농촌경제연구원 KREI리  
 porter 제2기 출범식이 시작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지난 몇 년간 1기 회임으로서 활동을 총괄하는 회원 분들의 마지막 모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한 회장인 저로서도 마지막 모임자리가 될 것 같아 아쉬움이 큼니다. 하지만 한국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서 새로운 회원들이 더 열심히 활동하  
 주리라 믿습니다. 하여 이번 모임을 통해 제2기 회임으로서 지속적으로 활동하신 분들을 바탕으로 신임 회장과 총무를 선출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제1기 회원들의 마지막 모임이니 꼭 참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기지회장 연구서-

■ 행사 개요

○ 일시 : 2017년 03월 22일 수요일 오전 11시 30분

○ 장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두장리 1595-4  
 농구관(☎ 031-334-2300), 임광태 사랑방(☎ 010-4437-8778)

○ 한 건

- 지역별 자체 간담회(소그룹모임) 경기 모인 개최
- 지역 리porter 활동 현황 및 KREI리porter 운영 계획
- 2기 신임회장 및 총무선출

○ 공지사항

- 간담회 전 점심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 또한 지역간담회에 참석하시는 분은 소정의 참석수당과 리porter 마일리지 적립되어 연말에 정산될 예정이오니 꼭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  
 기 바랍니다.
- 부부동반가능하오니 함께 참석해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은 우편물 수령 즉시 아래 번호로 회신 부탁드립니다.  
 경기지회 총무 임광혁(☎010-9135-4501)